

‘비리승려’ 정보 공유 시급

부적격자 ‘철새행각’ 막을 방법 없나?

지난 6월 창종해 강원도 원주에 본부를 둔 S종단은 창종한지 얼마안돼 큰 고민에 봉착했다. 종단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아울러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 종도들의 입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입증을 원하는 스님들의 신원과 수행 이력을 정확히 검증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혹시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 승적을 옮기는 것은 아닐까 하

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언가 대책이 없을까? 우선 해당 종단들의 승적 관리를 전산화해서 각 종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고종은 엄격한 승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발한 승적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 10월까지 승적 개인정보 입력기간으로 정해 소속 종단 스님 개인의 연수 및 안거 이력, 행자교육 및 안사 스님 이력, 분담금 납부 상황,

법상종 등도 올해부터 정기적인 승려분한 신고제를 실시해 종단 스님들의 활동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무리 내집안 단속을 잘해도 철새 비행승려를 받아주는 종단들이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물론 비행승려라는 것을 알고 입증을 허용하는 종단은 없다. 문제는 종단간 승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상임이사 법현 스님(태고종 사회부장)은 “2년 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종단 총무원장들이 모여 비행승려들을 적절하게 위한 연합감찰제도를 실시하기로 협의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조속히 연합감찰위원회를 구성해 감찰위원회가 단속한 비행승려들의 명단을 해당 종단에 통보하면 종단별로 적절하게 규제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종종 서울종무원장 법공 스님도 “특정 종단에서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승려는 타종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종단협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연합감찰제 시행을 강조했다.

현재 종단내 승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여래종 총무원장 해안 스님도 “이중 승적과 부적격자 유입 등을 막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승려들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교육에 있다”며 “종단납입과 무자격 승려 양산, 승가질서 파괴, 승가교육 부재 등을 집중 연구할 ‘승단발전연구위원회’ 설치를 통해 올바른 승풍을 계도시켜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연합감찰제 실시 · 승단발전위원회 설치

종단협차원서 강력한 규제장치 마련해야

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이 종단에서는 지난해 입종한 모 스님의 흑색무민 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전과자임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출가 후 스님들의 수행 이력이 모두 담겨져 있는 승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소신에 따라 종단을 옮기거나 창종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잘못을 저지른 비리승려들이 철새처럼 종단을 옮겨다니며 승적을 허위 조작하는 사례는 불교계의 오랜 골칫거리다. 종단을 창종하는 일이 까다롭지 않아 신생종단들이 짧은 시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승려나 사찰 늘리기에 급급하다보니 이중 회피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행승려들의 철새행각을 보

상별 현황 등 출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수행이력을 자세히 정보화 시키고 있다. 정보 입력이 끝나면 전국 지방 종무원들끼리 정보를 네트워크해서 문제가 되는 승려는 즉각 퇴출시킬 방침이다.

(재)일불신교종이 올해 초부터 승적관리 목적으로 발급하는 ID카드 승려증도 호응이 높다. ID카드 내에 모든 승려 정보가 입력돼 중앙 총무원에서 승적 관리가 용이하다. 예를 들어 지방 종무원소속 승려가 문제를 일으키면 즉시 중앙 총무원에 공문으로 상황을 알린다. 다시 총무원은 진상 조사를 한 후 해당 스님의 ID카드 내에 징계 상황을 입력하며, 동시에 16개 전국 총무원에도 이 정보를 공지한다.

관음종과 총화종은 이미 승려분한신고제를 통해 승적관리를 강화했고, 조동종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부 수재민 위로 방문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20여 가구를 방문,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정산 스님은 종단 스님 10여명과 함께 8월 1일 진부 진강사를 찾아 수해

복구 현황을 살핀 뒤 인근 하진부 9리 마을회관을 찾아 최동열 이장에게 라면 100박스를 전달했다(사진).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수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위로했다.

울릉도에 어린이집 개원 진감복지재단

진감복지재단이 울릉군으로부터 위탁 받은 군립 어린이집인 ‘꿈나무 어린이집’이 8월 2일 개원했다.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위치한 울릉군립 ‘꿈나무 어린이집’은 165평의 대지에 건립된 2층 건물로 현재 영아반 유아반 유치반 등 6개 반에 걸쳐 60명을 모집해 교육하고 있다.

특히 이 군립어린이집은 영아반(0~3세) 월생이 전체 3분의 2인 4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태고종 8월 10일 행자 시험 9월 5일부터 수계산림교육

태고종 제30기 합동수도 수계와 관련, 행자 소양시험을 8월 10일 실시한다. 또 수계산림 교육은 9월 5일에 일제해 10월 2일에 회합기로 했다. 총무원은 7월 27일 총무원회에서 제30기 합동수도 수계일정을 이와 같이 확정했다. 종단의 ‘선교육 후속도’ 방침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수도 수계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군포교 앞장



신도회별 군법당과 결연... 법사 파견 등 후원 영어·선법가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인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신도회별 군법당과 결연을 하고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 사진은 3조 지역신행회가 7월 30일 1사단 신병교육대 정각원을 위문한 모습. 사진제공=1사단 신병교육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신행단체별 결연 현황

| 결연 부대명 | 파견 지도법사 | 결연 신행회 |
|-----------------|---------|----------------|
| 3군지사 50탄약부대 공심사 | 혜현 스님 | 5조 신행회 |
| 1사단 신병교육대 정각원 | 청보 스님 | 1조, 3조 신행회 |
| 제3군수지원사령부 삼마사 | 청보 스님 | 7조 신행회 |
| 11130전공병단 발달사 | 청보 스님 | 한마음 합참단 |
| 제5정비창 호국 가야사 | 청고 스님 | 수원 심전회 |
| 3788부대 2세대 | 해전 스님 | 노인복지회 |
| 연천 1223 포병부대 | | 4조 신행회 |
| 25사단 호국 적성사 | | 2조, 5조, 6조 신행회 |
| 해병대 2사단 5연대 기공사 | | 4조 신행회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팀이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간접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지에 후원품 전달.
 - ▷법사 파견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포교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번호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포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경애 후원 석가모니불상(제·료) 문의:02-2004-8291

한 곳의 군법당을 꾸준히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이 10여곳의 군법당과 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화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원)은 지역 신행회 및 개별 산하단체별로 군법당과 결연하고 법사 파견, 장병 위문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군포교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1조, 3조 신행회는 7월 30일 1사단 신병교육대 정각원을 참배하고 장병들을 위문했고 7조 신행회도 7월 23일 결연 부대인 제3군수지원사령부 호국 삼마사를 위문했다.

또한 만안구 신행회 합참단, 노인복지회, 강남구 신행회, 영등포 및 인천신행회, 각 지역 신행회 등도 매월 1-2차례 결연 부대 군법당을 찾는다.

25사단 호국 적성사의 경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지원을 해 설립된 군법당으로 지금까지 2조, 5조, 6조 신행회에서 법당 위문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50여명의 불자장병들이 동참했지만 지금은 꾸준한 후원 덕에 10배인 500여명이 동참할 정도로 법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단순히 군법당과 결연을 통한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법가 법회, 영어 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어 군법당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0탄약부대 호국 공심사는 매월 둘째 주 선법가 법회를 병행한다. 한마음선원에서 제작한 찬불가인 선법가를 통해 장병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셋째주는 군법자들을 직접 안양본원으로 초청해 법회도 보고 점심공양도 함께 한다.

제5정비창 호국 가야사는 외국인 스님인 청고 스님이 영어 법회를 진행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청보 스님은 “스님들이 군포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신도들과 함께 군법당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군포교가 활성화되어 장병들 스스로가 마음의 주인임을 깨달아 건강하고 밝게 군생활을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부산, 광주 등 한마음선원 지원들도 지역 군법당과의 결연을 통해 지도법사 파견 등 정기적인 법회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두서 기자 doobi@buddhapia.com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입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연간 1만 6천여 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파괴 속에 보람있는 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호종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이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군포교로 연락주시시오.
-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 제일은행 325-20-203673
- 우리는행 1005-580-051116
- 농협 094-01-156954
- 지로번호 7681972
- 조흥은행 377-01-058158
- 우체국 010025-01-010767
- 국민은행 477401-01-092896
- 예금주 : 군포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內
 조계종 군포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군 종 특별교구